

## 인도네시아 농촌 사회의 변화: 정치경제적 위기 이전과 이후의 비교\*

김 형 준\*\*

### I. 들어가는 말

2004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이슈 중의 하나는 1997년 경제 위기로부터 인도네시아가 회복되었느냐의 문제였다. 야당 후보 모두는 메가와티(Megawati)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해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인도네시아만이 경제 위기로부터 회복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메가와티 측은 외환 보유고 증가, 무역 흑자, 실업률 감소, 환율 안정, 자동차 및 오토바이 판매량 회복 등을 예로 들며, 외환위기 이전의 경제 상태가 회복되었음을 홍보하였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률은 1998년 -13%에서 2003년 4.1%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0억불에서 290억불로 증가하였으며, 50%대의 물가상승률은 5%로, 15%대의 실업률은 9%대로 감소하였다는 것이다(BPS 2004).

거시 경제 지표가 보여주는 긍정적인 사인에도 불구하고, 메가와티 측의 주장은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경제 성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학계, 경제계, 정치계 담론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경제 상태에 대

---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13-A00017). 이 글을 읽고 건설적인 제안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에게 감사를 포함합니다.

\*\*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sumber@hanmail.net

한 시민들의 의견 역시 비관적 기조가 주를 이루는 듯했다. 매스 미디어에 보도된 내용을 통해볼 때, 대다수의 시민들은 체감 물가 상승과 실업, 환율 절하 등을 예로 들며, 과거 수하르토 시절보다 먹고 살기가 훨씬 힘들어졌다는데 동의를 표하였다. 이러한 견해에는 경제 위기 이후 형성된 ‘경제불안 신드롬’이 드러나 있다. 즉, 경제 위기의 기억을 떨쳐버릴 만한 명확한 계기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 점진적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경제 주체의 의식에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불안 신드롬’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소는 정치적 변화이다. 동일한 경제 위기를 경험했던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와 달리, 인도네시아에서는 민주화를 향한 급격한 정치 변화가 지속되었다. 수하르토 대통령의 퇴진, 일 년여 유지된 하비비 대통령 체제, 와히드 정권의 탄생과 탄핵, 메가와티 정부의 등장 등 1997년 이후 4명의 대통령이 재임하는 초유의 현상이 벌어졌다. 정치적 변화가 민주화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정치적 변화는 일상생활의 안정감을 가져다주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급속한 정치경제적 변동을 경험했던 인도네시아 자바의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그 변화의 양상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2-94년 사이에 조사되었던 자바 농촌의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재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인구 이동, 직업 구조, 토지 소유, 정치 분야의 변화에 초점 맞추어 지난 10여 년간의 변동 과정이 추적되었다. 이 글의 2절에서는 지난 10년 사이의 인구 변화가 검토될 것이며, 3절과 4절에서는 직업구조, 노동시장, 토지 소유구조의 변화 양상이 분석될 것이다. 5절에서는 새로운 정치적 환경 하에서 전개되는 주민들의 정치 활동과 그 영향이 논의될 것이다.

이 글을 통해 거시적 수준에서의 변화가 일반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 일반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채택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농촌 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일정 기간의 변화 과정을 추적한 연구가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Breman & Wiradi 2002; Husken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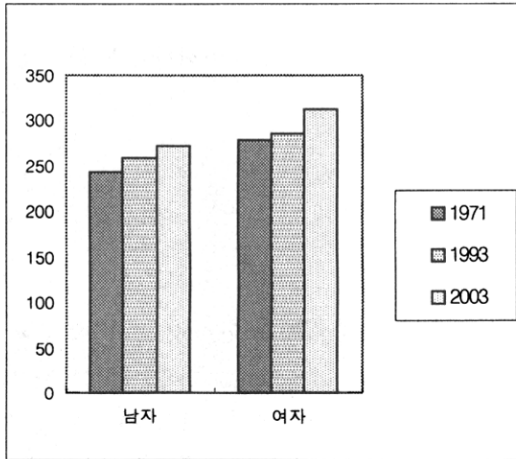
Maurer 1984, 1991), 이 글은 농촌사회 변동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비교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인도네시아 사회, 특히 자바의 농촌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내적 다이내믹스를 이해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인구 변화

이 연구는 중부 자바 족자카르따(Yogyakarta)시에서 서쪽으로 9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콜로종고(Kolojonggo: 가명)에서 행해졌다. 첫 조사는 1992년 9월부터 1994년 6월 사이 조사자가 현지에서 직접 거주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두 번째 조사는 2004년 1월에서 8월 사이에 조사자가 마을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지는 해발 150미터 정도의 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산암 토양과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인해 수도작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관개 시절이 확충된 1940년대 이후 이모작이 행해졌으며, 다수확 품종(high yielding varieties)이 도입된 1970년대 이후 삼모작 혹은 이년 5모작이 가능해졌다. 유리한 수도작 조건으로 인해 인구밀도는 1950년대 이후 평방킬로미터 당 1,000명 이상을, 1993년 이후에는 1,800명 이상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자바섬 내에서도 매우 높은 인구 밀집도를 보이는 것이다. 통계 자료가 존재하는 지난 30여 년 동안의 인구 변동 양상을 남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인구 변동 1971-2003>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난 30여 년 동안 풀로종고에서는 점진적인 인구 증가추세가 나타났는데, 93년 이후 10년간의 인구 증가는 이전 20년의 기간보다 조금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속화된 인구 증가세의 원인을 찾아보기 위하여 1993년 인구 조사에 기록된 마을 주민이 지난 10년 동안 어떠한 이동 양상을 보였는지 검토될 것이다.

1993년 인구 조사에 기록된 544명의 주민 중 72.6%에 해당하는 395명이 2003년에도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사망자는 65명, 출생자는 85명으로 인구의 자연 증가 추세가 이어졌지만, 인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결혼, 구직, 가구 이동에 따른 이주라 할 수 있다.

양계 출계에 기초한 자바 사회에서는 결혼 후 거주를 규정하는 뚜렷한 거주율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비부부가 같은 생활권내에 거주할 경우, 양측 부모 중 경제적 상황이 더 좋은 편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경제적 능력이 생긴 후 독립된 거주 공간을 만들어 분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Jay 1969). 지난 10년 동안 결혼했던 73명의 주민 중 같은 마을 남녀가 결혼한 경우는 2사례였다. 나머지 69명 중 결혼 후 배우자

가 마을로 유입된 경우가 46명, 마을 주민이 외부로 이주한 경우가 23명이었다. 이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해보면 여성 유입이 남성 유입을 초과하여서, 유입된 46명 중 30명이 여성이었으며 16명이 남성이었다.

결혼 후 마을로 유입된 주민이 유출된 주민보다 많은 이유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한 주민의 유입 이전 경제적 상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된 자료를 얻기는 불가능했다. 대안적으로, 이 글에서는 마을 주민 중 가장 안정적인 경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 선생과 일반 공무원의 사례를 통해 양계 출계 원칙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 따른 거주을 선택이라는 전통적 규범이 지속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부부 중 한 명이 학교 선생이거나 공무원인 가구의 자녀 중 17명이 결혼을 하였다. 이 중 4명은 배우자를 좇아 마을 외부로 이주한 반면, 12명은 배우자가 유입하였으며, 1명은 마을 주민과 결혼하였다. 이들 중 남성이 7명, 여성이 10명이었고, 외부로 이주한 주민 중 1명이 남성, 3명이 여성이었기에, 전체적으로 6명의 여성과 6명의 남성이 순유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이 결혼 후 거주지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부모가 안정적인 경제적 상태를 유지할 경우 그 자식들은 성별과 관계없이 결혼 후에도 마을에 거주하는 경향을 보다 강하게 나타냈다.

자식을 출가시킨 부모 역시 자식들이 마을에 거주하면서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성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에도 존재하였지만, 이전보다 부모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기간이 더 길어졌고, 부모에게 의존적인 영역 역시 확대되었다고 이야기되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자신들의 세대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경제적 도움이 집을 짓는데 국한되었다면, 현재의 젊은 세대는 일상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조차 부모에게 의존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한 마을 주민은 ‘요즘 애들은 끈두리(kendhuri: 전통의례)에도 참여하려 하지 않아’라는 표현을 통해 설명하였다. 즉, 마을 내에서 ‘성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독립 가구로 의례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Jay 1969), 의례 교환

망에 편입됨과 동시에 경제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신혼부부들이 독립적인 부조를 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 위기가 결혼 이후의 거주지 선택에 미친 영향은 간접적인 것이라 평가될 수 있지만, 주민들의 의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었다. 결혼한 자식이나 부모 모두 경제 위기 이후 자녀의 부모 의존성이 연장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행동 양식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지적했다. 주민들의 설명이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이는 경제 위기가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영역에서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설명틀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인구 변동에 영향을 미친 두 번째 요인은 이주이다. 이주는 개인 혹은 가족 단위로 행해지는데, 지난 십년동안 34명의 주민이 단신으로, 8가구 24명의 주민이 가족 단위로 마을을 떠났다. 이주의 동기는 두 경우 모두 구직이 압도적이었으며, 가구 이주를 행한 8가구 중 2가구만이 구직 이외의 이유로 이주를 결행하였다. 결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외부 이주를 설명하는데 있어 외환위기를 중요한 레토릭으로 포함시켰다. 즉, 직업을 찾아 외부로 떠나는 마을 사람, 특히 젊은 층이 경제위기 이후 급증하였다는 것이다. 구직을 위한 이주는 경제 위기 이전부터 젊은이들에 의해 채택되었던 전략으로써(Hugo 1985 & 2004), 이것이 경제 위기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의견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 또한, 93년 이전 구직을 위한 이주의 규모를 보여줄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 빈도가 외환위기 과정을 통해 증가되었음을 입증하기 역시 어렵다.

외부로의 이주와 달리 가구 전체가 조사 마을로 이주한 사례는 인구 이동에 미친 경제 위기의 영향을 상이한 각도에서 보여준다. 지난 10년 동안 15가구가 조사지로 이주하였는데, 그 중 9세대는 이 마을 주민과 뚜렷한 연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였다. 이러한 현상은 마을 주민과 혈연관계로 맺어지지 않은 가구의 유입이 전무했던 1971-93년 사이와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무연고 이주 세대 중 다수가 외환위기 이후에 이

주하였다는 사실은 이들의 이주와 경제위기가 일정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위기 이후의 이주가구 급증은 택지의 판매 증가와 관련된다. 이주 가구들이 기존에 건축되어 있는 집을 구매하기보다는 택지를 구입한 후 집을 건축하여 이사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판매되는 택지의 양은 외부인의 이주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도시와 가까운 거리에도 불구하고 1993년 이전까지 외부인의 이주가 전무했던 이유는 판매되는 택지가 제한적이었고, 이웃 주민에 의해 구매되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이었다.<sup>1)</sup> 외환위기 이후 외지 가구의 유입 증가는 토지 판매의 증가에 기인하는데, 택지 판매는 경제적 상황의 악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취한 적응 전략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무연고 외지 가구 모두는 핵가족이었으며, 그 중 5가구는 부부 중 한 명이나 부부 모두가 공무원이나 선생과 같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러한 구성은 고정 수입을 갖는 주민과 그렇지 못한 주민이 경제 위기에 의해 차별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하는데, 이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 절에서는 조사지 주민의 직업 구조상의 변화가 검토될 것이다.

### Ⅲ. 직업 구조의 변화

경제 위기가 가져온 부정적 결과 중의 하나는 고용 시장의 축소이다. 특히, 외부 노동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80년대와 90년대를 통해 확대되고 있던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 위기는 급격한 외부 고용기회의 축소에 따른 실업자 증가를 결과하였다. 경제 위기 하에서 끌로종고 주민들의 경제 활동 양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20세 이상 주민들의 직업이 비교검토될 것이다.

1) 토지 판매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의 4절을 참조할 것.

&lt;표 1&gt; 남녀 주민의 직업 분포 (1993 &amp; 2003)\*

	1993			2003		
	남	여	계	남	여	계
농업	52	31	83	29	34	63
자영업**	27	73	100	25	54	79
육체노동	49	14	63	69	26	95
서비스업	15	9	24	15	10	25
공무원/선생	13	10	23	13	9	22
주부	0	37	37	0	68	68
실업자	12	4	16	22	7	29
기타***	3	2	5	7	6	13
계	171	180	351	178	208	394

출처: 조사지역 서베이 & 인터뷰자료

\* 이 표는 주민들이 기입한 일차(primary) 직업만을 계산된 것임.

\*\* 자영업: 축산, 상업, 기타 개인 사업 운영; 육체노동: 건축일, 공장, 기타 소규모 생산장에서 노동; 서비스업: 상점의 점원, 사무실의 사환, 운전수 등.

\*\*\* 연금수혜자와 대학생

두 시기를 비교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농업 인구의 감소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새로 노동 시장에 진입한 젊은이 중 농업 부문에서 일하려는 주민이 급속히 감소했던 추세(김형준, 1998)를 고려해 보면, 농업 인구의 감소는 고령자의 사망과 함께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농업 노동과 관련하여 주목할 측면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농업 부문의 고용기회가 상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으로 이동했던 주민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농업 임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직업 선택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여성 고용 구조의 변화이다. 1993년과 비교할 때 2003년 자영업 종사 여성의 수는 급감한 반면, 주부의 수는 급증하였다. 자영업자로 분류된 여성의 대다수가 소규모 상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장사를 포기한 여성이 다른 부문에서의 재취업 기회를 찾기보다는 가정으로 돌아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기혼 여성이 가지고 있으며(Booth 2004; Syafrı 1978), 주부로 구분된 여성 중 상당수가 부정기적으로 농업일이나 소규모



가내 수공업을 행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경제 위기 이후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 상황의 호전과 함께 노동 시장에 재진입할 예비 노동력군의 형태로 남아 있다.

<표 1>에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주민의 증가세이다. 남성의 경우 건설일에 종사하는 주민이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우 마을 주변에 새로 생긴 섬유 공장에 7명이 취업하였다. 건설일은 80년대 이래 농업 부문을 대체할 고용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2003년에도 단일 부문으로는 가장 많은 47명의 주민이 이 부문에 종사하고 있었다.

건축일은 다른 직업보다 고용 불안정성이 높다. 따라서 경제 위기와 같은 불안 요소가 발생했을 때, 건축노동자들이 받는 타격은 보다 직접적이며, 이들은 실업 혹은 반실업 상태로 쉽게 전락하게 된다. 마을 주민에 따르면, 경제 위기 직후 다른 어떤 부문보다 건설 부문에서 가장 급속한 고용 감소가 발생했다고 한다. 건설 부문의 일자리 축소가 가정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져오는 또 다른 요인은 이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의 고용 전환이 탄력적이지 않다는 점인데, 이는 건설노동 자체의 속성보다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기인한다. 경제 위기 이후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태에 처했지만 농업 임노동과 같은 타부문으로 전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 마을 주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뭘랄까, 그게 [농업 노동자로 일하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지 (kurang enak). 예전에 일을 안했기 때문에, [논에서 일하려면] 부탁해야 하는데, 말하기도 쑥스럽고. 그렇다고 누가 와서 일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 노동일이라는 게 없다가도 생기고 하나까, 다른데 알아보기보다는 그냥 기다리지, 쉬면서.

노동 강도나 조건이라는 면에서 농업 노동과 건축 노동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이 주민의 지적처럼 농업 임노동자의 충원 방식은 농업 부문으로의 이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게다가 과거에 존재했던 농업노동자와 고용인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 그리고 노인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식의 부정적 인식 등은 건설 노동자가 농업 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했다. 상대적으로 건축일이 풍부했던 외환위기 이전의 상황 역시 농업 노동과 기타 노동 분야의 호환성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했다.

건축 임노동과 농업 임노동 사이의 호환성의 부재는 건축일에 종사했던 주민들이 다른 주민들보다 경제 위기 하에서 가장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3년 건설일에 종사하는 주민의 수는 가장 많았는데, 이는 족자까르따시 주변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sup>2)</sup> 건설 경기가 살아났기 때문이었다. 외환위기 과정을 통해 드러난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건설일은 누구나 쉽게 고용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남성 주민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난 10년 동안 지켜왔다고 할 수 있다.

<표 2> 연령별 직업 분포 (2003년)

	30세 이상 주민				20대 주민			
	남	여	계	(%)	남	여	계	(%)
농업	29	34	63	(19.7)	0	0	0	(0)
자영업								
상업	3	40	43	(13.5)	5	5	10	(13.3)
축산, 기타	16	8	24	(7.5)	1	1	2	(2.7)
육체노동								
건축일	43	0	43	(13.5)	4	0	4	(5.3)
공장, 기타	20	19	39	(12.2)	2	7	9	(12.0)
서비스업	12	5	17	(5.3)	3	5	8	(10.7)
공무원/선생	12	8	20	(6.3)	1	1	2	(2.7)
주부	0	54	54	(16.9)	0	14	14	(18.7)
기타								
퇴직자	5	0	5	(1.6)	0	0		(0)
학생	0	0	0	(0)	2	6	8	(10.7)
실업	11	0	11	(3.4)	11	7	18	(24.0)
계	151	168	319		29	46	75	

출처: <표1>과 동일

2) 족자까르따의 건축붐은 90년대 말 인도네시아 사회 전체가 혼란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과격한 폭동이 발생하지 않았던데 기인하였다고 한다. 사회적 안정성으로 인해 외지 자본, 특히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대규모 부동산 투자를 하였으며, 이는 건축업의 활황을 가져왔다.

최근의 고용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는 노동 시장에 신규 진입한 주민과 기존 주민과의 직업 차이이다. 이를 위해서<표 2>에서는 30대 이상의 주민과 20대 주민간의 직업이 비교되어 있다.

20대의 직업 분포를 30대 이상과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농업, 건축, 및 상업에 종사하는 비율에서 나타났다. 20대 주민 중 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농업이 젊은층에게 유인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남성인구 중 건축일에 종사하는 20대의 비율(13.4%)은 30대 이상의 비율(28.5%)보다 훨씬 낮은데,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건축 부문에서 급속히 축소되었던 고용 기회는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들로 하여금 다른 부문에서의 취업을 우선시하도록 유도하였다. 둘째, 건축일이 과거보다 덜 선호되는 경향이 젊은이들 사이에 존재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장사를 선택한 5명의 배경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들 중 1명은 대졸자로서 어머니가 하던 쌀장사를 같이 하는 형태를 취했던 반면 4명은 고졸자로서 건설일로 유입될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고품, 축산물, 음식물 매매와 같은 장사일을 선택하였다. 이들의 일일 매출 규모는 50,000-200,000 루피아(대략 1-3만원)였고, 이윤 역시 적을 경우 하루에 만 루피아, 많을 경우 삼사만 루피아에 이르렀다. 높지 않은 이윤과 매출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해 보면, 이들의 수익은 건설 노동자로 일할 경우 받는 일당 15,000-20,000 루피아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적다고 할 수 있다.

건축일 대신 수익과 안정성이 높지 않은 소규모 장사를 선택한 것에 대해 이들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즉, 건축일보다 장사는 노동강도가 세지 않으며, 상업에는 커다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외환위기 이후의 급속한 일감 감소에 따른 실직을 예로 들며 건축일 역시 그 고용상태가 불안정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실인식에는 경제 위기가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에게 미친 영향이 반영되어 있다. 경제위기 직후 고용 축소가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그 불안정성이 드러났던 건설일은 고용기회가 정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있어 여전히 불안정적인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일감을 찾을 수 있는 건축일보다 고용상의 불안정도가 높지만 높은 수익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직업을 모색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표2>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2003년의 실업자 비율이 1993년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신규 취업자들은 건축 부문으로의 유입을 미룬 채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의 가능성이 있는 직업, 예를 들어 서비스업이나 자영업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장기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거나, 다른 업종으로의 취업에 실패하게 될 경우, 건설일로 진입할 가능성은 상존하며, 이런 의미에서 건설일은 과거 농업 인노동이 맡았던 최후의 고용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업이나 자영업보다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선호되는 직업은 공무원과 선생이다. 화이트칼라 직업은 과거에도 선호되던 직종이었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 선호도가 더욱 높아졌다. 외환위기 직후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월급의 가치가 급감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음에도 정년까지의 임기와 최소한의 급여 보장이라는 안정성은 공무원과 선생에 대한 선호도를 강화시켰다. 특히, 와히드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공무원 임금의 현실화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공무원의 생활은 보장된다는 믿음을 마을사람에게 각인시켰다. 하지만, 높은 경쟁률로 인해 마을 주민 중 공무원이나 선생으로 신규 임용된 사람은 두 명에 불과하였다. 고등 교육에 소요되는 높은 경비와 공무원 취업의 불투명성에도 불구하고 1993년보다 4명이 늘어난 8명의 젊은이가 대학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화이트칼라 직업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를 보여준다.

신규 취업자의 직업 분포를 통해 경제위기 이후에 나타난 상반된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으로, 건축일에 대한 선호도 감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기적 수준의 안정적 수입보다는 장기적으로 높은 소득을 가져올 가능성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존재했다. 이러한 전략은 안정적이며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선생과 같은 화이트

칼라 직종에 접근할 수 없는 고졸 출신의 젊은이에 의해 주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들이 가진 자본력의 한계는 서비스업을 통한 높은 수익의 실현을 어렵게 하며, 이들의 경제적 상황이 건축일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다른 경향은 부유한 가정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공무원과 선생에 대한 선호로서, 이들은 화이트칼라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대학 교육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sup>3)</sup>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경향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려는 특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통 자바사회의 경제 규범이라 이야기되었던 현실 수용(nerima)과는(Geertz 1976; Magnis Suseno 1991) 차별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경제위기를 통한 불확실성의 경험이 현재적 확실성보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선택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킨 점은 아이러니컬한 모습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가능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농업에 기초한 조사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는 점이다.<sup>4)</sup>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비공식부분의 노동자로 전락했던 도시지역의 젊은층과 달리(Hardjono 2000) 조사 지역의 젊은층들은 부모에 의존하면서 노동 시장의 변화를 기대할 보다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 3) 2004년 명망 있는 사립대학교의 학비는 학기당 4-5백 루피아, 낮은 수준의 대학교의 학비는 1-2백만 루피아에 이르렀다. 학비 이외에 매달 30-40만 루피아가 소요되기 때문에, 대학 교육을 위해서는 많게는 일 년에 천만 루피아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초중고교 선생의 초임 월급이 백만 루피아 정도임을 고려하면, 대학교 교육비는 일반인에 의해 쉽게 부담될 수 없는 규모라 할 수 있다.
- 4) Bresciani et al.(2002)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 농촌사회에서는 농업을 통한 순수입의 증가추세가 보고되었다고 하는데, 경작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그리고 농업외 부문에서의 수입이 적은 농가일수록 그 증가세는 높았다. Smith et al.(2002) 역시 농촌 지역 주민들의 수입이 외환위기 기간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반면, 도시노동자의 경우 큰 폭의 수입 감소를 경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경제 위기 하에서 유리한 경제적 생존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IV. 토지 거래상의 변화

전통 자바 사회에서 농지는 유일한 생산 수단으로서 높은 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졌다. 토지 소유 여부는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토지소유주와 임노동자 사이에는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경제외적 불평등이 존재하여서 노동자들은 임노동 기회를 유지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의 다양한 경제외적 요구를 수용해야 했다(Selosoemardjan 1962). 농지의 중요성으로 인해 토지 판매는 농민이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었고, 이런 이유로 토지 매매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녹색 혁명이 가져온 급속한 생산량 증가 추세가 80년대 들어 지속되지 못하고, 병충해 증가, 생산비 증가, 미곡 가격 통제 등에 의해 농업 수익이 여타 부문의 수입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Kim 2002; White 1989), 농지에 부여되었던 경제외적 가치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주민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팔아 사업을 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빈번하게 거론하였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땅을 팔아 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널리 회자되었다. 토지 판매를 억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매는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 현상은 상속관행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양계 출계에 기반을 둔 자바 사회에서는(Geertz, H. 1961) 성별구분 없이 자녀들에게 균등 상속이 이루어진다. 상대적으로 주민 이동이 많지 않던 60년대와 달리 70년대 이후 직업과 결혼을 통해 마을 외부로 이주하는 주민의 수가 증가하였고, 이들에게 상속된 토지는 매매의 대상이 될 높은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1980-1993년 사이의 토지 거래 양상을 보면 농지 판매자 중 과반수 이상이 마을 외부에 거주하며 농지를 상속 받은 후 판매한 경우였으며, 택지 거래 역시 이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김형준 1998). <표 3>에는 지난 10년간의 토지 매매 상황과 거래규모 그리고 평균 거래 규모가 이전 시기와 비교되어 제시되어 있다.

<표 3> 토지 거래 추이 (1970-2003)

연도	빈도		거래 규모(m <sup>2</sup> )		평균거래규모 (m <sup>2</sup> )	
	논	택지	논	택지	논	택지
1970-1979	10	18	9880	7670	980	420
1980-1993	20	22	23740	8750	1190	390
1994-2003	22	30	21250	9510	965	317

출처: 면사무소 자료 & 인터뷰 자료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1994-2003년 사이의 토지 거래는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였는데, 농지보다는 택지 매매 건수의 증가세가 더욱 높았다. 택지 거래는 인구 증가, 특히 새로운 가구의 유입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만, 그 주된 원인이 도시화였던 것은 아니다. 새로 유입된 가구 중 한 가구만이 도시에서 이주한 가구이며, 나머지는 조사지에서 10 킬로미터 이내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이었다. 따라서 외부 이주민의 유입은 도시의 팽창과 관련되기보다는 공급의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즉, 판매 대상으로 나온 택지가 증가하였고, 매물이 조사지 주민이나 이웃 마을 주민에 의해 소화되지 못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택지 판매의 증가는 외환위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외환위기 이후 힘든 경제적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서, 현재적 이용가치가 적은 택지를 판매하는 경향이 토지를 상속받은 외부 거주민에게서 나타났다.

농지의 경우 전체 매매 건수는 약간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그 거래의 내용에 있어서는 택지 거래와 상이한 흐름을 찾을 수 있다. 22건의 농지 거래 중 5사례는 빛을 갠기 위해 한 명의 대주주가 판매한 것이며, 나머지 17건 중 부채지주에 의한 판매가 7건, 관청에 의한 토지 수용이 4건이었다. 이 사례들을 제외할 경우, 마을 주민에 의한 농지 판매는 6건에 불과하며, 이는 농지 매매가 외형적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농지 판매에 있어 주민들이 보인 상대적인 소극성은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된다. 동남아의 다른 농촌 지역에서 전통적

으로 나타났던 것처럼(Scott 1976)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줄 농지에 대해 보다 강한 집착을 보이며, 이는 극한 상황에 처하기 전까지 농지 판매를 억제하는 경향을 결과한다. 주민들 역시 농지가 충분한 수익을 가져다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가진 최소한의 안전판이라 지적했는데, 건설일을 하는 한 마을 주민은 자신이 경작하는 0.2헥타르의 농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벼농사 지어서 돈 벌겠다는 생각 안한지 오래되었지. 하지만, 외환 위기라고 세상이 시끄럽고, 일감이 끊겼을 때, 안도감이 들더라고, 땅이 있어서 굶게 되지 않겠지. 다른 데 돈을 쓰지 않아서, [수확만으로] 한동안 먹고 살았고, 굶주리지는 않았지. ... 농촌 사람에게 있어 땅은 안녕(slamet)을 가져온다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마을 사람들이 느꼈던 농지의 안정성은 소규모 토지라도 보전하는 편이 낫다는 인식을 강화시켰다. 마을 주변 2헥타르의 농지를 매입하려는 건설업체의 시도가 실패한 사건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건축붐이 불었던 2000년 이후 도시의 건설업체가 마을 인근의 농지를 시가의 두 배로 매입하기로 약속하고 토지 수용에 나섰지만, 주민 다수의 저항에 부딪혔다. 한 주민에 따르면, 자신을 비롯한 몇몇 주민이 시가의 다섯 배로 쳐주기 전에는 농지를 판매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높은 토지 보상비에 솔깃했던 소수의 주민을 제외하고는 토지 수용을 거부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거주민 증가에 따른 세수 확대, 대규모 토지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 이익, 건설사에서 약속했다고 하는 커미션을 기대했던 면장과 면사무소 직원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요한 설득과 압력을 행사했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 사례는 주민들에 의해 농지가 순수한 경제적 재화로서 이해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으로서 판매 대상이 아니라 전통적 의미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White et al. 2002) 경제 위기 과정을 거치면



서 농지에 보다 강하게 부여되었다.

농지에 부여된 높은 가치, 족자까르따시를 중심으로 나타난 건축붐은 조사 지역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4>에는 지난 20여 년 동안의 지가 변동 추세가 제시되어 있다.

<표 4> 지가 변동 추세 및 토지 가격추세

연도	농지 (1m <sup>2</sup> 당, Rp)	택지 (1m <sup>2</sup> 당, Rp)	평균쌀값 (kg, Rp)	1m <sup>2</sup> 의 논에 상당하는 쌀 (kg)	1m <sup>2</sup> 의 택지에 상당하는 쌀 (kg)
1980-1984	2361	2588	270	8.4	9.4
1985-1991		n.a.			
1992-1993*	7,000	8,500	600	11.7	14.2
1994-1996	8925 [2]**	12,735 [4]	750	11.9	16.9
1997-1999	15,459 [4]	20,250 [7]	1500	10.3	13.5
2000-2003	52,723 [6]	71,219 [6]	2500	21.8	28.5

출처: <표3>과 동일

\* 1992-93년의 자료는 토지거래 기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견해에 기초한 자료임.

\*\* [ ]안에 있는 수치는 전체 사례가 아닌 지가 계산의 기초가 된 토지거래 사례.

<표 4>에 나타난 가장 흥미로운 현상은 외환위기 직후, 쌀 1kg의 가격으로 환산된 토지가가 하락했다는 점이다. 하락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80년대부터 지가 상승세가 지속되어 왔음을 고려해보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 토지 가격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미곡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고, 마을 외부에 거주하는 토지 상속인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왔던 상황에 기인했다.

경제 상황이 상대적인 안정을 되찾은 2000년대 들어 토지 가격은 반등세를 보였다. 쌀 10Kg 정도의 가치를 가지던 1m<sup>2</sup>의 농지는 20Kg이상으로, 1m<sup>2</sup>의 택지는 30kg에 가까워질 정도로 급상승하였다. 경제 위기 이후 토지가 가져다주는 안정성에 대한 주민 의식의 고양과 건축붐에 따른 토지 상승 기대 심리는 지가 급등을 가져온 요인이었다. 농지 가격

의 급등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과 농지 판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 사이의 차이를 확대시켰다. 1993년 1000m<sup>2</sup> 농지에서 나오는 1년 수익과 토지 가격의 비율이 3: 100이었다면, 2003년 이 비율은 2.3: 100으로 낮아졌다.<sup>5)</sup> 이는 농지를 이용할 경우 얻게 되는 이익률이 감소하고 있고, 주민들이 지적하는 대로 농사를 통해 경제적 잉여를 축적할 가능성이 더욱 더 희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10년 동안의 지가 변동 추세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 외환위기 과정을 통해 생활의 안전판으로서의 토지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고, 이는 토지, 특히 농지 판매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른 한 편으로, 토지 가격의 급등세는 토지가 갖는 환금성과 낮은 생산성을 부각시켰다. 조사지 주민들은 농지의 낮은 생산성을 명확하게 인지하였지만, 동시에 농지에 커다란 사회문화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농민의 경제적 합리성이 단순히 경제적 손익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의미에 기반을 두어 형성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 V. 정치적 변화

수하르토 대통령의 하야 후 국가적 수준에서 전개된 정치적 자유화는 팔로종교에도 적용되었다. 민주화의 첫 실험장은 1999년에 있었던 면장(lurah) 선거였는데, 30여년만의 자유선거로서 당시의 고양된 정치 분위기와 함께 주민들의 커다란 관심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이 선거는 자유화의 긍정적인 면이 아닌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킨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금권을 통한 선거부정과 불량배를 동원한 헐박과 폭력이 난무했었

5) 2004년 1000m<sup>2</sup>의 논을 경작하여 대략 250kg의 쌀을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으며, 1kg의 쌀이 2,500루피아라는 전제하에서 전체 수익은 625,000루피아에 이르렀다. 이중 30%정도는 제반 비용으로 사용되며, 1년에 3회 경작할 경우 전체 수익은 대략 1,200,000루피아에 이른다. 주민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수익률은 병충해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계산된 것으로서, 실제 수익률은 이보다 적다고 한다.

다고 하는데, 주민들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은 선거에 당선된 면장이 뚜렷한 직업 없이 부랑아로 살아왔던 전력을 가졌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었다고 한다. 당선된 면장이 시장의 상인이었다는 점은 이러한 평가에 과장된 면이 없지 않음을 보여주지만, 선거 이전까지 그가 지역 내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행하지 않았으며, 선거 당시 다수의 불량배가 고용되었던 사실을 고려해보면 주민들의 평가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면장 선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삼십 여년 만에 찾아온 정치적 자유화는 민주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민주화의 두 번째 실험장이었던 2002년 면의회 선거에서도 면장 선거와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재구성한 선거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면단위에 의회가 구성된다는 소문이 들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서 설명회가 열렸다. 면사무소 직원은 기존의 주민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처럼 면의원 선거가 비밀투표 방식이 아닌 공개투표 방식을 취하게 되리라고 설명하였다. 공개투표가 있던 날, 전체 주민 중 2/3 정도가 이장집에 모였다. 사회를 보던 이장은 후보자를 자유롭게 지목하도록 요청했고, 이에 RW장<sup>6)</sup>이 A씨를 거명했다. 준비가 되어있지 않던 다른 주민들이 가만히 있자, RT장<sup>7)</sup>이 B씨를 지명했다. 순간 회의장 여기저기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고, 지명된 B씨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잠시 후, 이장이 두 사람의 후보자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먼저 지명된 A씨는 준비해온 것 같은 연설을 했고, B씨는 고맙다는 말만 간단히 했을 뿐이었다. 참가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이장이 요청하자, 처음 발언 기회를 신청한 주민이 마을을 위한 A씨의 평소 행동을 높이 평가하고, 거수 대신 만장일치 형식으로 A씨를 추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저기에서 동의한다는 소리가 들렸고, 이장은 반대 의견이 있는지를 물은 후 의견 제시가 없자 A씨를 후보로 공식 선정하였다.

- 
- 6) RW(Rukun Warga)는 마을보다 낮은 행정단위로서, 한국의 통에 해당하며, RW장은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는 직책이며,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다. 조사 마을의 경우 하나의 RW 밑에는 대략 80가구 정도가 소속되었다.
- 7) RT(Rukun Tetangga)는 행정단위로 볼 때, 한국의 반에 해당하며, RT 장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다. 하나의 RT 밑에는 대략 30-40 가구가 소속되었다.

조사지 상황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 면의원 선거 과정은 공개 투표의 형식을 취한다는 전제하에서 커다란 무리 없이 이루어진 선거로 이해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선거는 철저한 각본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몇몇 사람에 의해 의도된 계획을 다수의 참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다.

선거 과정상의 문제는 두 후보 사이의 지위 차이였다. 후보자로 지목된 B씨는 마을 내에서 주변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농업 임노동자로 빈곤층에 속했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마을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반면 A씨는 도시의 시장에 상점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였으며, 평소 마을 행사에 적극적으로 기부하였다. A씨를 지지한 사람들은 그와 경쟁이 될 수 없는 B씨를 경쟁자로 내세움으로써, 철차상의 민주성을 유지하면서도 용이하게 A씨가 당선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 계획은 회의장에 왔던 주민들 모두에 의해 쉽게 간파될 수 있었지만, 이런 식의 진행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주민은 없었다. A씨를 지지한 사람 모두가 마을의 지도자급이었고, 이들의 준비된 움직임에 대한 집합적 대응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두 차례의 선거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유화된 정치적 공간이 민주적 관행의 확립을 보장할 수는 없었다. 기득권 세력은 기존의 권위와 금권을 바탕으로 자유화된 공간을 적절하게 이용하였다. 일반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힘을 결집시킬 대안적 체제를 가지고 있지 못했고, 기존의 체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가시화되지 못했다.<sup>8)</sup>

조사 지역에서 정치적 자유화의 영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세 번째 기회는 2004년의 대통령 선거였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 이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금권 정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와 정치적 지향이 보다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기회였다.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자신이 지

8) 농촌사회에서 일반주민들의 조직화와 그에 따른 민주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Wiloso(2004)를 참조할 것.

지하는 후보를 자유롭게 표명하였으며, 이중 일부는 캠페인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서도 자유화가 가져온 부정적 영향이 표출되었다. 일상에서 숨겨진 채 존재하던 사회문화적 갈등이 캠페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는데, 조사 지역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종교도간 대립이었다.

다른 자바 농촌과 달리 조사 지역에는 전체 인구의 30% 정도에 이르는 기독교도가 존재했다. 80년대 이전까지 무슬림과 기독교도의 관계는 문제없이 유지되었지만, 이후 이슬람 부흥 과정을 거치면서(Hefner 1987) 종교도간 관계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났다. 무슬림들의 종교 정체성이 강화되고, 종교가 개인의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에 따라, 독실한 무슬림을 중심으로 기독교도가 무슬림의 종교적 삶을 방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두 종교도간의 사회관계에 일정한 경계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수하르토 정부 하의 억압적인 분위기로 인해, 종교적 차이는 정치적 차이로 전환되지 않았고 종교는 정치적 상징으로 이용되지 않았다.

정치적 자유화는 다양한 자원들이 마을 주민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켰고, 이는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선 이전에 치러진 총선에서 지역 정치지도자들의 경제적 자원이 이미 소진되었고, 대선 결과가 이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에 이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였기 때문이었다. 대선 과정에 지역 정치지도자들이 거의 간여하지 않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다섯 명의 대선 후보 중 종교적 색채를 강하게 띤 후보는 두 명이었고, 나머지 세 명은 국가주의적(nationalist) 색채를 띠었다. 마을의 무슬림 활동가들은 자신들이 속해있는 이슬람 조직이 공식적으로 후원한 아민 라이스(Amien Rais)를 지지한 반면, 기독교 주민 대다수는 국가주의적 정당 소속의 메가와띠를 선호하였다. 마을 수준의 선거 캠프가 두 후보 지지자들에 의해 구성된 후, 이들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선거 운동을 시작하였다.

선거 분위기가 고양되자 아민 라이스 지지자들이 종교적 상징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가장 집중적으로 이용된 매개는 모스크에서 열리는 정기 강연회이었다. 캠페인이 시작되기 전 무슬림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모스크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공간이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아민 라이스 지지자들은 모스크를 찾아오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종교적 레토릭을 이용한 캠페인을 감행하였다. 이들은 아민 라이스에 대한 지지를 지하드(Jihad: 종교적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항쟁)로, 기독교도가 지지하는 후보를 선호하는 무슬림을 이교도(kafir)로 규정하는 등 종교적 상징을 이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또한, 이슬람의 상징인 반달과 카바(kabaah)가 그려진 인쇄물을 무슬림 가구의 대문에 붙이거나 무슬림 주민의 집만을 선택적으로 방문하는 것과 같은 활동을 통해 종교 정체성과 정치적 성향을 연결시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했다.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던 기독교도들은 공식적인 장소대신 비공식적인 장소를 캠페인에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교회의 강론은 정치적 색깔을 띠지 않았던 반면, 소규모 예배 모임에서는 정치적 선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무슬림들이 특정 후보의 지지에 주력했다면, 기독교도 사이에서는 특정 후보의 배제가 중시되었다. 이들은 아민 라이스를 이슬람 근본주의자로 규정하고, 그가 대통령이 될 경우 이슬람법이 국가법으로 채택되어 기독교도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교회 건축이 금지되는 등 종교 활동에 제약이 가해질 것이며, 기독교도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모든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을 유포시켰다. 기독교도 측의 지지 후보는 국가주의적 색채의 후보였지만, 마을의 기독교 지도자의 아들이 메가와띠측 선거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메가와띠가 적극적으로 지지되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종교적 상징이 이용되었다는 사실은 정치적 자유화와 함께 종교 정체성이 정치 과정의 중요한 자원으로 동원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움직임이 자기 종교도만을 대상으로 국한되어 진행됨으로써, 종교도간 차이가 공적인 장소에서의 갈등 표

현이나 물리적 충돌로 전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종교 문제가 정치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 자리 잡으리라는 예상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면장과 주지사만을 직접 선거로 선출했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이장, 군수, 도지사 역시 선출직으로 전환되며, 이는 선거 과정의 과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금권 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고, 금권 선거를 위해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정치환경 하에서 종교적 감정은 커다란 비용 없이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조사지에서 나타난 기독교도와 무슬림의 대립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종교적 차이, 예를 들어 이슬람과 기독교 내부의 분파적 차이가 정치적 자원으로 이용되는 상황이 앞으로 전개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수하르토 체제를 힘겹게 무너뜨리고 정치적 자유화를 쟁취한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그 과실을 가장 먼저 수혜한 대상이 독재 권력에 의해 강력하게 억압되었던 근원적 감정(primordial sentiments)이라는 점은 민주화가 손쉽게 성취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 VI. 맺음말

외환 위기로 촉발된 경제 위기는 단시일 내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환율절하와 살인적 인플레이션은 빈곤층의 비율을 순식간에 50%대로 끌어올렸고, 대규모 감원과 경기불황은 20%대의 실업률을 결과하였다. 경제위기에 이은 정치적 변혁은 민주화라는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30여 년 동안 억압된 사회적 갈등을 분출시켰고,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종족적, 종교적 분쟁으로 인해 수만 명이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은 수하르토 체제 하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정치경제적 변화를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대응 양상이 단일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

은 자신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추어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상이한 적응 양식이 결과하였다.

조사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나타난 변화와 적응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인구 이동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주를 통한 구직 노력이 확대됨과 동시에 결혼 후 외부 이주 대신 마을에 정착하는 경향 역시 강해졌다. 이러한 전략상의 차이는 가족의 계층적 속성과 관련되어서, 상위계층일수록 자식이 부모에 의존하는 기간이 길어졌고, 하위계층일수록 짧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부모에게 의존하는 젊은 부부가 독립 가정의 구성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가족 구조상의 일시적 변화로 기록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경제 위기가 장기적으로 자식 양육 의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가족 구조에 일정한 영향을 가져오리라는 점은 부정될 수 없다.

경제 위기는 주민들의 안정지향적 성향을 강화시켰지만, 동시에 안정적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현재의 안정성과 미래의 가능성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고졸 이하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 불안정성이 경제 위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고용기회의 회복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건설일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였다. 그 대신, 현재의 수익은 불안정하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사와 같은 자영업이 선호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안정성 추구 경향은 중상층 가족 사이에서 고등 교육에 대한 투자로 표현되었다. 하지만, 고등 교육에 소요되는 높은 경비, 졸업 후 화이트칼라 직업을 구할 높지 않은 가능성 등은 이들의 선택이 안정성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에 기초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는 경제 위기가 주민들의 안정성 추구 경향을 강화시켰지만, 동시에 위기의 영향을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방식으로 경험했던 농촌지역에서(Bresciani et al. 2000; Smith et al. 2000) 미래의 불투명한 가능성을 추구하는 전략 역시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주민들의 안정성 추구 경향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줄 농지의 가치를 재확인시켜 주었으며, 이는 농지 판매를 감소시켰다. 농지 판매의 감



소와 건축붐에 따른 농지 가격 상승은 주민들을 딜레마에 빠뜨렸다. 농지에서 나오는 이익과 농지의 환금 가치 사이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서, 경제적 시각에서 볼 때, 농지를 보유할수록 손해를 입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주민들은 농지를 경제적 가치보다는 사회문화적, 심리적 가치를 통해 바라보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였다. 주민들의 농지 보유가 경제적으로 볼 때 비합리적 선택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지만, 경제 위기를 경험한 농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전략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경제 위기에 이은 정치적 자유화는 마을 수준의 다이내믹스가 보다 가시적으로 작동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자유화가 시작된 초기, 그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 면이 부각되었다. 금권의 이용, 기존의 정치 엘리트 집단에 의한 조작이 선거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일반인을 결집시키고 조직화시킬 대안 세력의 부재로 인해 자유화된 공간 내에서 일반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기회는 확대되지 못하였다. 또한, 종교도 간 대립과 같은 마을의 문제가 특정 집단에 의해 이용됨으로써,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전면에 부각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권위주의적 정부의 퇴출이 지역 수준의 민주화를 자동적으로 가져올 수 없음을 보여주며, 자유화의 진전이 내부적 갈등의 공식적인 장으로의 전이를 가속화시키리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주제어 : 끈두리, 토지거래, 무슬림, 경제위기

## 참고문헌

- 김형준. 1998. “녹색 혁명 이후 자바 농촌의 변화”, 『농촌사회』 8:218-245.
- Booth, A. 2004. “The Changing Importance of Off-Farm Income for Agricultural Households in Indonesia.” In T. Leinbach(ed.). pp. 15-37.
- Bresciani F. et al. 2002. “Weathering the Storm: The Impact of the East Asian Crisis on Farm Households in Indonesia and Thailand.”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7(1): 1-20.
- BPS. 2004. *Beberapa Indikator Penting Mengenai Indonesia*. Jakarta.
- Breman & Wiradi. 2002. *Good Times and Bad Times in Rural Java*. Leiden: KITLV Press.
- Geertz, C. 1976. *The Religion of Java*.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eertz, H. 1961. *The Javanese Family: A Study of Kinship and Socialization*. Glencoe: The Free Press.
- Hardjono, J. 2000. “The effect of the Economic Crisis on Working Children in West Java.” In Chris Manning & Peter van Diermen(eds.). *Indonesia in Transition: Social Aspects of Reformasi and Crisis*. Singapore: ISEAS.
- Hefner R. 1987. “Islamizing Java: Religion and Politics in Rural East Jav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46(3):553-554.
- Hugo, G. 1985. “Structural Change and Labor Mobility in Rural Java.” In G. Standing (ed.). *Labor Circulation and the Labor Process*. pp. 46-88. London et al.: Croom Helm.
- \_\_\_\_\_ 2004.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and Rural Dynamics.” In T. Leinbach(ed.). pp. 103-133.
- Hüsken, F. 1998. *Masyarakat Desa Dalam Perubahan Zaman: Sejarah*

- Diferensiasi Sosial di Jawa 1830-1980*. Jakarta: Gramedia.
- Jay, R. 1969. *Javanese Villagers: Social Relations in Rural Modjokuto*.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Kim H-J. 2002. "Agrarian and Social Change in a Javanese Village."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2(4): 435-455.
- Leinbach T.(ed). 2004. *The Indonesian Rural Economy: Mobility, Work and Enterprise*. Singapore: ISEAS.
- Magnis-Suseno Franz. 1991. *Etika Jawa: Sebuah Analisa Falsafi tentang Kebijaksanaan Hidup Jawa*. Jakarta: Penerbit PT Gramedia.
- Maurer, J-L. 1984. "Agricultural Modernization and Social Change: The Case of Java Over the Last Fifteen Years." *Masyarakat Indonesia* 11:109-119.
- \_\_\_\_\_. 1991. "Beyond the Sawah: Economic Diversification in Four Bantul Villages, 1971-1987." In P. Alexander, et al.(eds.). *In the Shadow of Agriculture: Non-Farm Activities in the Javanese Economy, Past and Present*. pp. 92-112. Amsterdam: KIT Press.
- Scott, J. 1976.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 Rebellion and Subsistence in Southeast A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elosoemardjan. 1962. *Social Changes in Jogjakart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Smith, F. et al. 2002. "Wages, Employment and Economic Shocks: Evidence from Indonesia."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1): 161-193.
- Syafri Sairin. 1978. *Problems of Harvest Laborers in rural Yogyakarta*. Yogyakarta: Gadjah Mada University.
- White, B. 1989. "Java's Green Revolution in Long-term

Perspective.” *Prisma* 48:66-81.

White, B, Titus, M. & Boomgaard P. 2002. “The Experience of Crisis in Indonesia: Comparative, Local and Historical Dimensions.” In H. Nordholt & I. Abdullah (eds.). *Indonesia in Search of Transition*. pp. 149-176. Yogyakarta: Pustaka Pelajar.

Wiloso, P. 2004. “Civil Society in Central Java: 1998-2004.” In H. Samuel & H. Nordholt (eds.). *Indonesian in Transition: Rethinking Civil Society, Region and Crisis*. pp.89-106. Yogyakarta: Pustaka Pelajar.

Abstract

## Changes in Indonesian Rural Society: A Comparison Before and After the Economic and Political Crisis

Kim Hyung-Jun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hanges in a rural Javanese village having undergone rapid economic and political transformations. A field research was carried out in a Javanese village which had been investigated previously between 1992 and 1994. Population movements and shifts in occupational structure, structure of land tenure and political activities were examined with the focus on changes during the last decade.

The study shows that villagers of different economic class have chosen different strategies to cope with shortages in working opportunities, so that those of higher class have lengthened their period of dependency on parents, while those of lower class have chosen to migrate to find out outside working chances. The economic crisis has strengthened a trend to give priority to economic stability. A trend, especially among the youth, to sacrifice the present for the future is also visible. Rather than satisfying urgent economic needs of the present, some have opted to invest for the future by giving their children chances of higher education or by working in a sector with

lower remuneration but with better prospect. The economic crisis has reminded villagers of the value of land, resulting in a decrease in land transactions. Although soaring land price has made agricultural profit less than before, socio-cultural values and experiences of economic crisis have urged them to retain their land, which is viewed to be the last resort for survival.

This study may help to explain how macro-level economic changes have impacted on everyday life of ordinary villagers and what have been adaptive mechanisms chosen under the crisis. Given that not many researches have been done to re-study developments in a certain place in two different periods, this study may provide comparative data to understand agrarian transformations and inner dynamics of rural villages in Indonesia.

Key words : kenduri, land transaction, muslim, economic crisis